

러시아, 연간 1800만 톤 생산하는 '북극 LNG-2' 프로젝트 착수

- 본 프로젝트로 인해 러시아 내 약 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
- 현재 한국이 에너지안보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-러 북극에너지 협력 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

- 러시아 민간기업 노바텍(Novatek)이 추진하는 자사의 두번째 LNG 프로젝트인 '북극 LNG-2(Arctic LNG-2)'에 착수함
- 2022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'북극 LNG-2'는 러시아령 카라(Kara)해의 기단(Gydan) 반도에 건설될 예정이며 연간 1,800만 톤의 LNG 생산 예정 (총 투자비 100억 달러로 추산)
- '북극 LNG-2' 프로젝트는 영구 동토층에서의 플랜트 기반 건설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육상에 플랜트를 건설하지 않고 오브만(Bay of Ob)의 중력 플랫폼에서 모듈식으로 건설할 계획
-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노바 엔지니어링(Novainzhiniring), NIPIGAZ, 테크넵, FMC 및 린데 AG와 계약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설계(front-end engineering & design, FEED) 작업을 201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,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결정은 2019년에 승인할 예정으로 발표
- 한편, 올해 말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'야말 LNG'는 연간 165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이며, 사베타(Sabetta) 지역 내 항구 및 공항 건설을 포함해 총 투자비는 약 270억 달러로 지분률은 노바텍 50.1%, 프랑스 토탈 20%, 중국 CNPC 20%, 중국 실크로드기금 9.9%임



그림 1. 야말 LNG 프로젝트 (야말 반도) 및 북극 LNG-2 프로젝트 (기단 반도) 위치 (참조: Novatek)

자료 1 : The Independent Barents Observer (17.08.11.)

정부,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로 북방경제 협력에 힘 실어

-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러시아, 중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북방경제협력의 현실화로 농수산 인프라, 교통물류, ICT, 조선업 등 한-러 경제협력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

-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, 중국 등 인접국과의 경제 프로젝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'17년 8월말 출범할 예정
- 북방경제위는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 11명과 민간 인사 14명도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러시아, 중국, 몽골, 중앙아시아 진출의 가교 역할을 담당
- 러시아, 중국과의 가스 개발 및 철도망 연결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와 관련해 러시아 사할린주의 LNG 도입과 한-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
- 앞서, 한-러 양국 정상은 7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농수산, 항만, 유통물류, 인프라 등 극동 개발사업,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 사업 협력 및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쇄빙선 건조사업 등 북극 협력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한바 있음
- 또한, '17년 9월 6~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제3차 동방경제 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및 전문인 등 300여명 규모의 대표단과 동행해 한-러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

자료 2 : 매일경제 ('17.08.10.)

미국, 남극 맥머도 기지 현대화 계획 추진

- 맥머도 기지 현대화 작업으로 향후 몇 년간 일부 과학 연구 및 인프라 지원 중단 예정

- 남극 내 가장 큰 규모의 상설 연구기지인 미국 맥머도(McMurdo) 기지는 로스 섬의 헛 포인트(Hut Point) 반도에 1955년 12월 설립돼 현재까지 과학 활동과 미국 남극연구프로그램(USAP)의 보급 및 운영지원 허브로서 역할 수행
- 남북극 프로그램 및 극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국립과학재단(National Science Foundation)은 맥머도 기지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건물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
- 맥머도 기지의 현대화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으로 향후 몇 년 내 미국 의회에서 정밀 조사 예정
- 한편, 미국 의회는 40년 된 미국 쇄빙 해안경비대 소속 폴라스타(Polar Star)의 노후화로 인해 신규 쇄빙선 건조 기획 및 설계 자금을 배정한 상태로 2023년까지 건조할 계획



그림 2. 미국 맥머도 기지 (자료: US Antarctic Program)

자료 3: The New York Times ('17.07.17.)